

## 2019년 기상청 9급 해설과 정답

1. ②

㉠ 신라의 향가 <안민가> ㉡ 고려의 경기체가 <한림별곡> ㉢ 조선 초기 악장 <용비어천가>  
㉣ 조선 세조 계유정난 때, 성삼문의 시조

2. ①

난삽(難澁: 어려울 난, 까다로울 삽): 글이나 말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어렵고 까다롭다.

(예) 난삽한 문장. 글이 난삽하다.

<해설>

② 비루(鄙陋: 더러울 비, 좁을 루) ③ 무계(無稽: 없을 무, 머무를 계) ④ 소통(疏通: 트일 소, 통할 통)

3. ①, ④ 복수정답

<해설>

① 그라나다, 에콰도르 ② 에티오피아, 포르투갈 ③ 싱가포르, 베네수엘라

4. ③

주제와 어긋난 것을 고르자. ‘자연물 연민의 정’과 이 시는 연관이 없다. 주변의 작은 섬들을 열거하고,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드러내는 작품이다.

<해설>

① 섬을 ‘우리나라 눈물, 우리나라 사랑’으로 비유했다. ② 각이도, 송이도, 안마도 등의 섬 이름이 열거되었다. ③ 보았네: 종결어미가 통일되어 운율을 살렸다.

5. ④

우유가 닭이다: 피동문이다. ‘닭아지다’는 뜻이다.

사동문이 되려면: ㉠ 아이에게 구두를 닭이다(닭게 하다). ㉡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조카에게 닭였다(닭게 하다)

6. ④

운심은 권세가들이 춤을 추라고 해도 추지 않을 정도로 고고한 기생이다. 그러나 광문과는 잘 어울린다.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. 그러나 ‘익살과 기지’란 ‘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능력’인데 운심에게 그런 점은 없다.

7. ①

잊혀진: 잊히(피동접사)+어+진(지다: 피동보조동사): 이중피동은 절대 금지다.

8. ②

3단락 첫 줄에 정확히 나온다.

<해설> ① 1단락: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도입된 제도다. ③ 2,3단락: 전체 소송 비용이

줄어드는 것은 아니다. 피해자들이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④ 2단락: ‘같은 피해’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는 제도다.

9. ②

오지 않는 입을 그리워하는 시인데, 자연물에 감정이입을 한 구절은 없다. 감정이입이란 내가 슬프니 ‘물도 슬피 운다’ 등의 구절을 말한다.

<해설>

① 역설법을 쓴 것으로 유명한 시다. ‘병풍에 그린 황계닭이 꼬끼오 하고 날개를 치며 운다’는 발상이 역설이다. 소망의 간절함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풀고 있다.

③ 6행에 나오는 ‘춘수만사택 하운다기봉’은 중국 도연명의 유명한 한시를 인용했다. 그 뒤로 ‘육관대사 성진이’는 김만중의 소설 <구운몽>을 인용했다.

④ 후렴구 ‘이 아해야 내 말 듣소, 지어자 좋을시고’는 화자의 심정과 전혀 연관이 안 된다. 입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후렴구는 명랑하게 읊는 것은 고전시가 특징이다.

10. ①

㉠ 기르(시)다: 어간 ‘기르’/어근: ‘기르’

㉡ 먹히(시)다: 어간 ‘먹히’/어근: ‘먹’(피동접사 ‘히’를 빼면 어근)

공식: ① 어간: 주체높임선어말어미 ‘(으)시’ 앞까지가 어간  
자음받침 아래는 ‘으시’를 넣고, 모음 아래는 ‘시’만 넣으면 된다.  
(예) 비우다: ‘비우시다’ 어간: 비우/먹었다: 먹으셨다: 어간 ‘먹’  
② 어근: 접사를 모두 제거하면 된다.  
비우다: 비+우(사동접사)+다: 어근: 비

<해설>

③ 정답다: 정다우시다(ㅂ불규칙이라 ‘우’로 된다): 어간: 정답/정(명사)+답(접사)+다: 어근 ‘정’  
귀엽다: 귀여우시다: 어간 ‘귀엽’/ 어근: 귀엽(아무런 접사도 없다)

④ 앳되다: 앳되시다: 어간 ‘앳되’/ 어근: 앳되, 드높다: 드높으시다, 어간: 드높/드(강세접사)  
높+다: 어근 ‘높’

11. ①

먼저 (다)는 1단락에 못 온다. ‘네 가지 능력’이 첫 줄인데 그 내용이 (나)에 나오기 때문이다. 화제제기로 (나)를 먼저 1단락으로 찾고 시작한다. 1단락 요지는 인간의 기억, 사유, 상상, 표현의 제약을 말한다. 그 뒤를 이어주는 것은 (가) 단락이다. ‘그러나 그것들이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라’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.

12. ③

③의 남성은 여성과 모순관계다. 사람이면서 남성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.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13. ③

유추 기법이다. 넥타이 빌린 것=인간 관계로 빗대고 있다. ③도 우리말=토종물고기로 빗대고

있다.

<해설> ① 대조: 차이점 ② 비교: 유사점 ④ 흑백논리다.

14. ④

(가)는 구체적 이야기라 본론이라 1단락이 될 수 없다. (다)를 1단락으로 골라야 한다. ‘노동’이라는 화제제기다. 1단락의 요지는 ‘노동의 역할’이다. 그 뒤를 잇는 단락으로는 노동의 기능을 말하면서 화제가 확장되는 (라)이다.

15. ②

㉠ 갔었니: 낮춤이고 ‘가니/가나’는 격식체의 ‘해라체’다. 하계체는 ‘가게,가는가’로 한다.

<해설>

① 부사격조사 ‘께’를 썼고 ‘여쭙다’는 특수 어휘를 써서 객체높임이다.

③ ㉠㉡은 낮춤으로 해라체다. ‘요’를 붙이면 높임이 되어 ‘해요체’가 된다.

㉢ 합시다: 하오체가 맞다. 하십시오: 이건 합쇼체가 된다.

16. ③

㉢: 서술어가 ‘주셨다’: 3자리서술어다. 주어+부사어+목적어가 모두 필요하다.

<해설>

① ㉠ 필수성분: 주어(그녀는), 서술어(예뻐다): 2개

② ㉡ 필수성분: 주어(경찬이는), 목적어(만화를), 서술어(보았다): 3개

④ 서술어 ‘개통될지’의 주어가 있어야 한다. 생략할 수 없다.

17. ①

① 긴: 기본형이 형용사 ‘길다’이며 ‘길고,기니,긴,기네,깁니다’로 활용하는 ㄹ탈락규칙용언이다. 어미가 변화(활용)하는 것은 동사, 형용사의 특징이다. 관형사는 활용할 수 없다.

<해설>

② 한: 같은이란 뜻의 관형사 ③ 저(이/그): 관형사 ④ 새: 관형사

18. ③

③ 진(동사에 관형형어미가 붙은 관형어) 채(관형어 수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명사)

<해설>

① 자립명사: 앞의 수식어가 없이도 혼자서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. ② 자립명사 ④ 부사로 뒤의 동사 ‘마르다’를 수식한다. 아직 덜 된 상태라는 뜻.

19. ①

매다=매우다(0): ㉠ 통 따위의 둥근 물체에 테를 끼우다. (예) 망건이 머리에 테를 매운 것 같다. ㉡ 체의 바퀴에 헛불을 맞추어 씌우다. (예) 체를 매우다. ㉢ 북, 장구에 가죽을 씌워서 만들다. (예) 북을 매우는 작업 중이야.

<동음이의어>

|  |   |
|--|---|
| 메다:  | 메다:   |
| ㉠ 막히거나 채워지다. (예) 하수도 구멍이 메다. 밥을 급히 먹으면 목이 멘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㉠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. (예) 어깨에 배낭을 메다. 총을 메다.     |
| ㉡ 장소에 가득 차다. (예) 마당이 메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였다. ㉢ 감정이 북받쳐 목 소리가 잘 나지 않다. 너무 기뻐 목이 메었다. | ㉡ 책임을 지거나 임무를 맡다.<br>(예) 집안의 장래를 메고 나갈 아이다. |

20. ②

<해설>

① 고자질하다 ③ 콧방울 ④ 짹짹하다